

# 일본의 교과교실제 변천과 학교운영상의 과제

Changes in Departmentalized Classroom System in Japan



屋敷和佳 /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정책 평가연구부 총괄연구관  
Yashiki Kazuyoshi /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olicy Research of Japan  
yashiki@nier.go.jp

## 1. 머리말

일본의 건축학에 있어서 학교시설은 중요한 연구대상의 하나이다. 오늘 일본의 교과교실제에 대해 발표하는 데 있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정비(하드웨어)와 학교운영(소프트웨어)의 관계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교과교실제의 연구나 시책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현재 일본의 건축학회에서는 교과교실제에 관한 연구발표가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에 관한 학회에서 교과교실제의 연구는 그다지 없다.

발표의 구성은 표 1과 같으며, 발표상의 의견부분은 소속기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의 학교교육제도를 보면 그림 1과 같이 초등학교(6년간)와 중학교(3년간)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그 후 고등학교, 대학으로 이어진다. 1999년부터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를 합친 중등교육학교가 새롭게 설치되었으나, 아직 학교 수

는 42교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2 참조).

일본은 학교시설 정비경비는 설치자가 부담하는 '설치자 부담주의'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시설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서 일정기준을 정해 국가가 시설정비비를 보조하고 있다.

## 2. 교과교실형 교사정비의 배경과 목적

### 2.1 교과교실제와 교과교실형 교사

일본 문부과학성의 학교시설정비지침에서는 교과교실제를 각 교과마다 전용교실(교과교실)을 설치하여 학생이 매 시간 교실이동을 행하면서 수업을 받는 시스템이라 하며, 이 교과교실제의 실시를 전제로 특별히 정비된 교사를 교과교실 교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교과교실제'를 '교과교실형의 학교운영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이 생략하여 '교과교실형'이라고 말하므로 구조를 가리키는 것인지 교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육분야에서는 이미 1950년에 교과교실제라 일컫고 있었다.

'교과교실제'에 대해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 '보통교실제' 또는 '특별교실제'이다. 최근, '교과센터방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것은 교과교실제에 포함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 2.2 교육개혁과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

#### 1)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이유

최근, 교과담당제인 중학교에서 교과교실형 교사가 관계 자료부터 주목받아, 학교개축 등을 계기로 정비를 꾀하는

표 1. 일본 교과교실제의 변천과 학교운영상의 과제  
(국공립중학교를 중심으로)

목차	주요 세부 내용
1. 교과교실형 교사정비의 배경과 목적	- 교과교실제와 교과교실형 교사 - 교육개혁과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
2. 교과교실제의 변천	- 교과교실제의 시대구분 - 교과교실형 교사의 활동모습
3. 교과교실제의 이점과 과제	- 교과교실제의 이점 - 교과교실제의 과제 - 사례연구
4. 향후의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 향후의 교과교실제형 교사정비 - 한국에의 시사점

\* 본 원고는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회 자료집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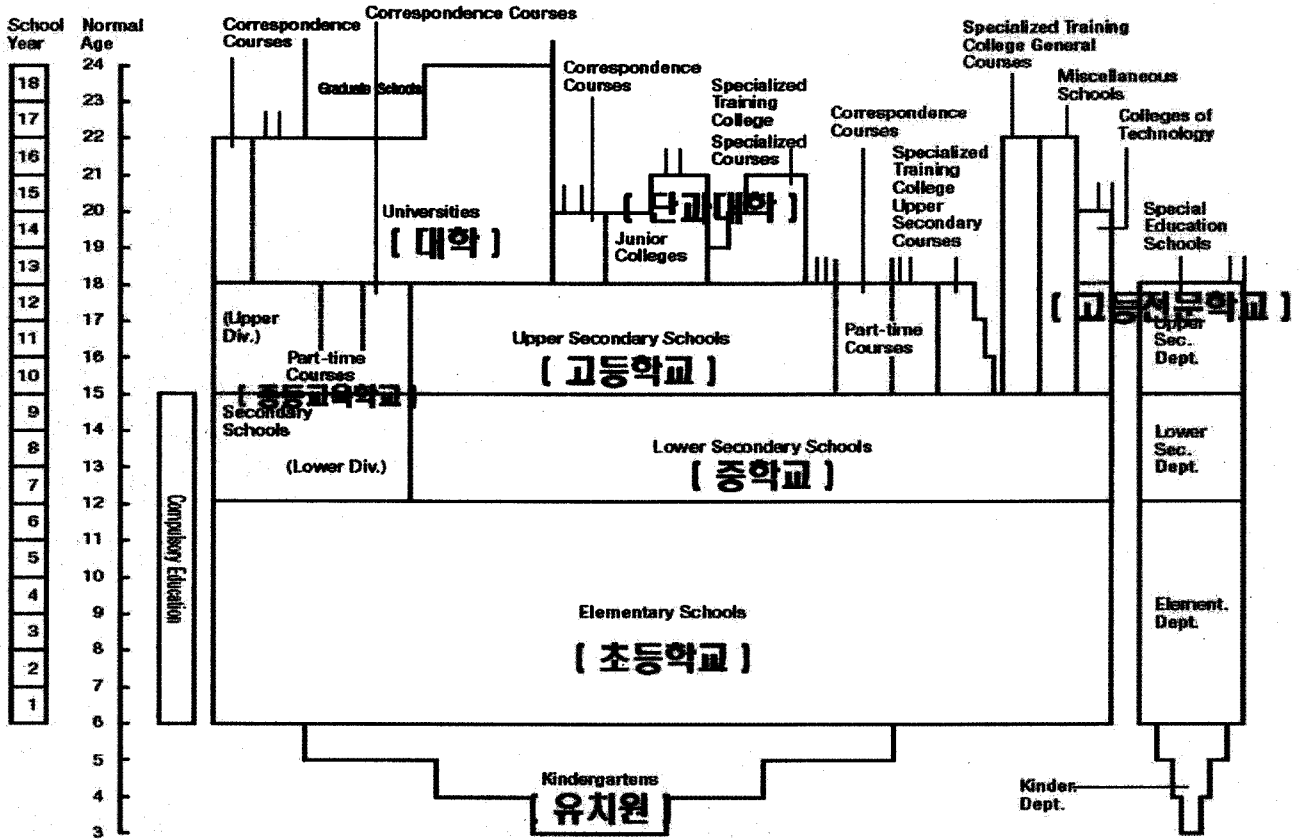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의 학교 교육제도(School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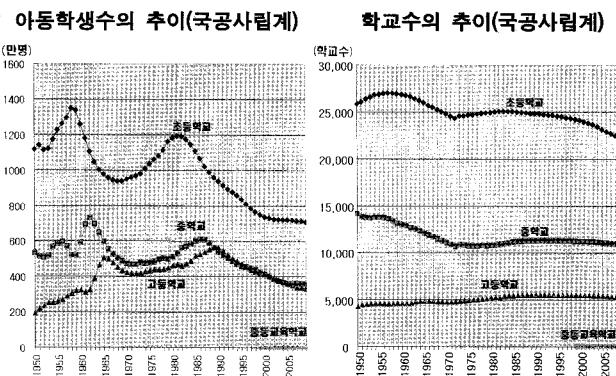
지자체(시구정촌교육위원회)가 늘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 정비 측면과 교육개혁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시설정비 측면에서 일본의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조류가 있다.

일본의 중학교 학생수는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감소를 시작했으나, 그 이전은 학생의 급증기이었고, 학교 수나 교실 수를 확보하는 데 급급하였다. 즉 학교시설의 '양적정비'의 시대였다. 그 후 학생수의 감소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에 재정적인 여유가 생겨 학교시설의 질적 충실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학교시설의 '질적충실'시대의 국가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서, '다목적 스페이스'의 보조가 있다. 문부과학성은 1984년에 다목적 스페이스에 대한 보조를 개시하였다. 다목적 스페이스의 보조는 중학교에 있어서 교과미디어센터의 정비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같은 시기에 교육개혁이 진행된 것이 중요하다. 내각 직속 심의회였던 임시교육심의회는 제3차 답신에서 '인텔리전트 스쿨' 구상을 제창하였다. 이 구상은 당연히 학교시설의 고기능화나 다기능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이용 등 학교시설의 다목적 이용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1990년의 문부과학성 통지 '문교시설의 인텔리전트화에 대해서'를 받아 시구정촌이 추진한 파일럿모델사업 가운데에는 교과교실형교사의 정비를 검토해, 실제로 건설을 행한 지자체도 있다. 교육개혁 가운데 학교시설의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표 2 참조).

또한, 임시교육심의회에서는 '개성중시'가 명확히 내세워졌으며, 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성)에서는 '살아가는 힘'이라는 육성목표를 세워 학생의 자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과교실형 교사는 이들 교육개혁이 추구하는 방침에 따른 교사건축으로서 주목된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이다.



\* 아동학생의 감소→재정적 여유→학교시설의 질적 충실

그림 2. 교육개혁과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

표 2. 개성중시 및 학생의 자주성을 중시한 교육개혁(초중학교 시설정비정책의 전개)

교육정책의 움직임 등	연도	학교시설 정비 시책·보조 등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학교생활의 여유와 충실함	1977	
<초중학교 아동수의 전후 제2피크>	1982	「학교시설의 문화적인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통지)
중학교 심의 교육내용 등 소위원회 제언(개개의 아동학생의 특성에 맞춘 지도의 연구)	1983	
	1984	「다목적 스페이스의 길잡이」 작성/보조개시
<중학교 학생수의 전후 제2피크>	1986	
임시교육심의회 제3차 답신(인텔리전트 스쿨 구상)	1987	
나미아이무라설립 나미아이초등학교 개축(교과교실제 개시)	1988	「교육방법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학교시설의 존재방식에 대해서」(통지)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배울 의욕과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육성	1989	
	1990	「문교시설의 인텔리전트화에 대해서」(통지) 파일럿 모델 연구사업 개시
초중학교에서 40명 학급 전면 실시(제5차 개선 계획 종료)	1991	「학교시설의 복합화에 대해서」(통지)
제6차 교직원 정수 개선 계획 개시(TT등, 학생지도 대응 등)	1992	「초중학교 시설 정비 지침」, 「중학교 시설정비 지침 책정」(교과교실 형의 경우 배려사항 들어감)
	1993	「여유교실 활용 지침」 책정
치바시립 우타세중학교 신축(교과교실제 개시)	1995	
중학교 심의 답신(여유 속의 「사는 힘」을 육성)	1996	초중학교 교실내 운동장 기준 면적의 개정
중학교 심의 답신(한사람, 한사람의 능력 위주·적정 교육, 교령 사회에의 대응)	1997	초중학교 기준 면적의 개정: 평균개정을 초 17.8%, 중 18.3%, 다목적 스페이스 가산면적 확대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완전 주5일제, 「사는 힘」, 특색있는 학교 만들기	1998	
「표준법」의 개정(소인수 지도, 학급 편성의 탄력화)	2001	「신세대 학습공간」(IT나 소인수지도 등) 정비로 보조(다목적 스페이스 가산 확대: 초 18.0%, 중 10.5%)
중학교 심의 답신(확실한 학력의 향상, 학습지도 요령의 기준성을 한층 더 명확화)	2003	「학교시설 내진화 추진지침」 책정
	2004	「학교시설 배리어 프리화 추진지침」 책정
세타가야구: 새로운 정비기본 방침(교과교실형이라고 하지 않음)	2005	
	2006	신축 증축을 제외한 보조금의 교부금화
초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개정/ 수업시 수증가, 도덕 체육의 충실화	2007	
	2008	학교시설평가의 존재방식에 대해(최종보고)

2) 교과교실제 실시교

필자들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2008년 3월 현재의 국공립 중학교에 있어서 교과교실제 실시교를 보면 그림 3과 같다. 이 시점에서는 전국에서 52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수개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에 의하면, 실시기간이 30년 이상에 미치는 긴 학교가 3개교 있으나, 모두 국립대학소속중학교이다. 공립학교에서 가장 길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20년간 계속하고 있는 나미아이중학교다. 또한, 학교명 앞에 학급수(2008년의 수 3학년 계)를 들고 있으나, 나미아이중학교를 포함하여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중학교에는 소규모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시교는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적인 치우침은 없다.

3) 교과교실제 경험교

한편, 현재는 교과교실제를 그만두고 있으나(휴지를 포함) 과거에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적이 있는 학교를 보면 그림 4와 같다. 단, 실시기간이 분명한 학교만을 게재하였으며 2주일 정도의 시행으로 끝난 학교는 제외했다.

그림 4에 의하면, 1947년 일본에서 새로운 학교제도(육삼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교과교실제가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상당수의 중학교에서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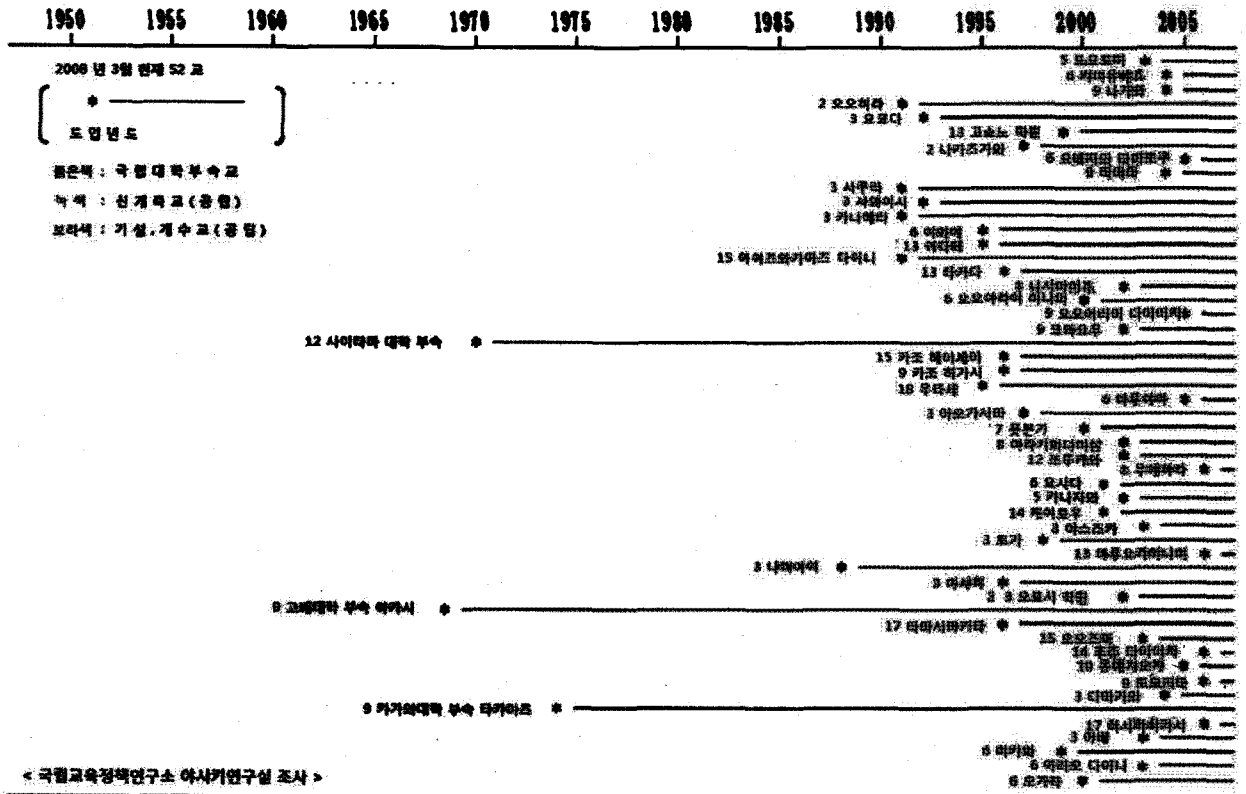


그림 3. 교과교실제 실시교(국립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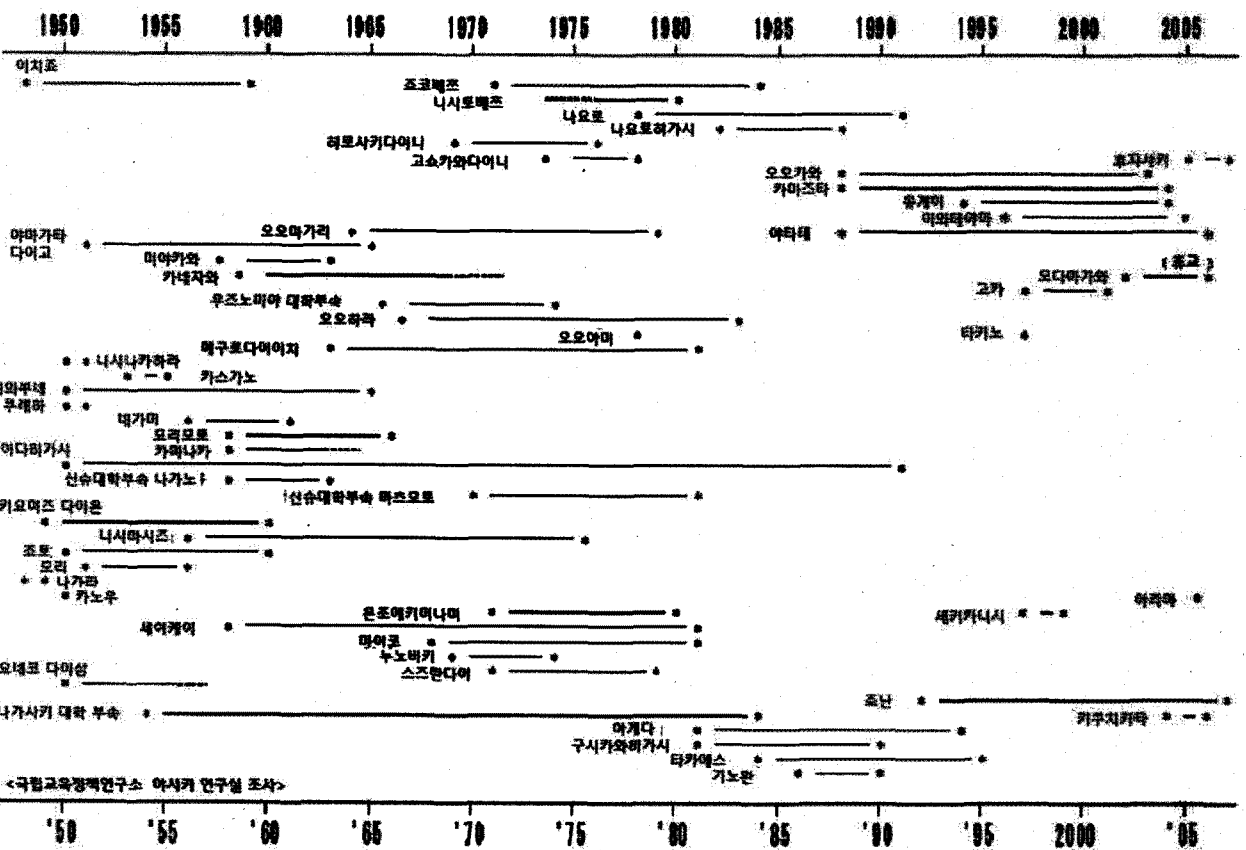


그림 4. 교과교실제 경험학교(국립중학교)

교실제가 실시되고 있었던 점을 당시의 자료로부터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시기간이 판명된 학교는 많지 않다.

필자들의 조사에서는 1998년 4월의 시점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하는 국공립중학교는 29개교였다. 이 10년 동안 36개교가 새롭게 교과교실제를 개시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13개교가 교과교실제를 휴지, 폐지하였다. 이들과는 별도로, 최근 1주일 정도의 시행으로 중지한 학교 또는 교과교실형 교사로 정비하면서 실제로 교과교실제의 도입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학교도 수개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교과교실제의 변천

#### 3.1 교과교실제의 시대구분

일본의 교과교실제의 도입시기에 대해서 시대구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뉜다.

##### 1) 전후의 신교육제도 도입 시기(1947~50년대)

① 육삼제 도입 후, 일부 지방에서는 연합국점령군(GHQ)의 지도에 따라 실시되었다. ② 문부과학성은 교실 부족으로부터 교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노리고 모델 스쿨을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를 전제로 한 교사보급에 힘썼다. ③ 그 한편으로 신제중학교의 이상을 학교가 독자적으로 검토해, 다양한 시험의 일환으로서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학교도 있다.

##### 2) 교육기기에 의한 교육혁신의 시기(1960~70년대)

과학기술의 혁신을 시대배경으로 교육내용의 현대화가 제창된 시대이다. 교육공학의 전개와 함께 OHP, 텔레비전, 애널라이저등의 교육기기를 교과교실에 설치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는 학교도 나타났다.

##### 3)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혁신적 대처 시기(1970~80년대)

오키나와현에서는 본토 복귀 후, 빈약한 학교시설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 국가의 특별한 재정조치가 집행되었다. 그런 가운데 실험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최첨단 학교 건축이 수개교 건설되었다. 교과미디어센터나 오픈형 교실을 가진 획기적인 교사였다.

##### 4) 소규모교에 있어서 교과교실형 교사의 개발 시기(1980~90년대)

벽지소규모교의 개축 시, 개개인에 응하는 교육을 가능케 하는, 또는 학생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교과교실형 교사가 계획되었다. 학생의 생활공간(있을 곳)으

로서 로커를 둔 '홈베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설치한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5) 교육개혁을 목표로 하는 교사 개발 시기(90년대 이후) 소규모교에 있어서 성과가 널리 선진된 점도 있어, 규모가 큰 학교에서도 교과교실형 교사가 퍼져갔다. 그때까지 과제였던 '학생이 있을 곳'의 확보를 위해 다양한 타입의 홈베이스가 고안되었다. 또한, 교과미디어센터의 정비도 일반적이 되었으며, 교과미디어센터나 교과연구실을 관련시켜 계획해 교사의 핵으로 삼는 '교과센터방식'이라고 불리는 설제도 늘어갔다. 다른 한편으로 여유교실을 활용한 교과교실제의 도입사례나 학급감소에 맞춰 교사의 개보수를 행해 교과교실형 교사로 개조하는 사례도 나타나 왔다.

#### 3.2 교과교실형 교사에 있어서 활동의 모습

##### 1) 전후의 신교육제도 도입(1947~50년대)

GHQ지방군정부에 의해 교과교실제의 도입이 피해진 현으로서 기후현과 가나가와현이 있다. 모두 아메리카 하이스쿨에서 교직경험이 있는 담당관으로부터 강한 지도가 있었다. 가나가와현에서는 개인시간 분배를 의무화한 것이 교과교실제의 실시로 이어졌다.

그림 5는 홋카이도의 지방군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홋카이도의 유일한 모델교가 된 중학교의 사례이다.

구제 고등소학교의 교사를 전용하여 신제중학교의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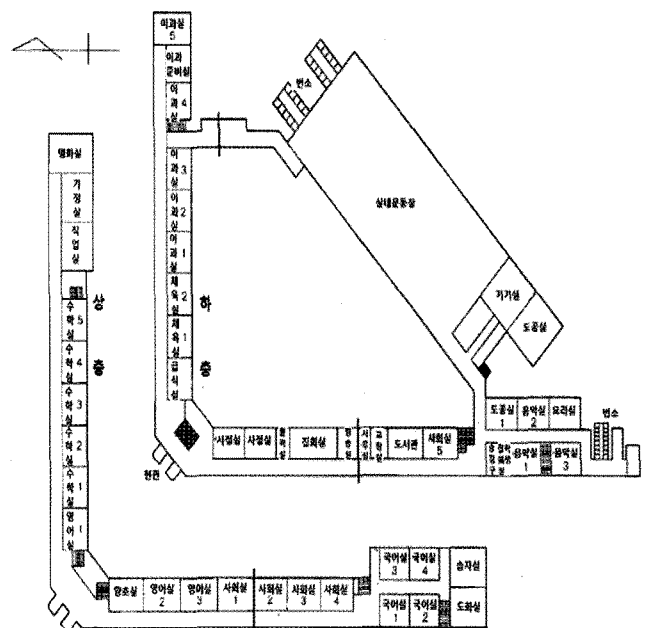


그림 5. 삿포로 시립이치조중학교(1948)  
(구고등여학교를 전용,직원실폐지, 33학급 35교과교실 2,476명)

로 사용하였으며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실을 폐지해 교과교실로 활용하였다. 2000여명의 학생이 대열을 이루어 숙연하게 교실이동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학교에서는 흠뻑이나 학교 주5일제 등의 연구도 행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중학교 교사의 건설이나 교실의 확보가 교육정책의 중요과제였다. 거기서 문부과학성은 전국의 학교건축의 새로운 계획사례를 모델 스쿨로 지정, 교과교실제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GHQ지방군정부에 의한 지도에 따라 교과교실제를 도입한 학교도, 문부과학성의 권장에 입각하여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학교도, 전체로서 교과교실제의 실시는 그다지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 GHQ의 영향력이 없어지고 한편으로 학급수가 줄어 교실수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자 교과교실제가 해소된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적 길게 교과교실제를 계속한 것은 학교가 독자적으로 신제중학교에 있어서의 교육의 존재방식을 연구한 학교가 있다. 그 예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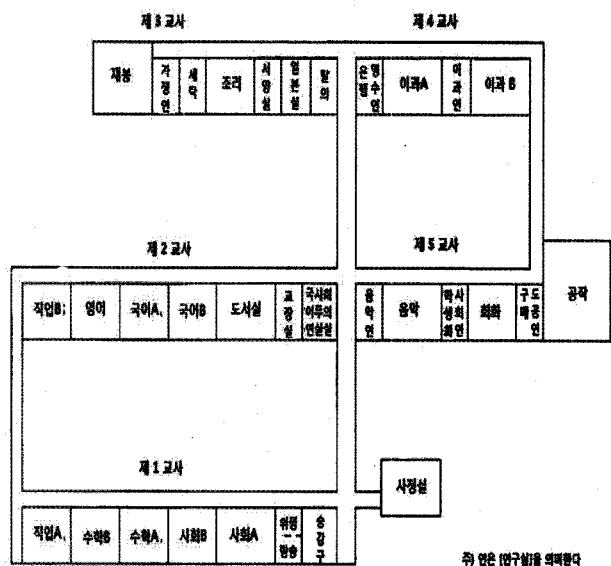


그림 6. 미나마리하다노중학교(1950)  
(1954교사개축, 교과연구실은 있으나 직원실이 없음, 가로분할 HR 실시, 12학년 17교실 428명)

이 학교는 1950년부터 교과교실을 개시해, 1961년까지 교과교실제를 행했다. 가로배분 즉,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혼성에 의한 흠뻑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필연적으로 교과교실제가 된다.

또한, 공립학교 중에서 가장 길게 교과교실제를 계속한 것은 나가노현에 있는 이이다하가시중학교이다. 1950년부터 1991년까지 41년간에 걸쳐 시행했다. 이 학교는 밤늦게까지 전등이 켜져 있는 이른바 ‘제중학교’였다. 학생회 활

동, 청소활동, 교원연수, 교과연구에 대해서도 열심이었으며 현내의 모델교였다. 이전, 이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분이 필자가 소속해 있는 연구소에 있는데, 이 연구원에 의하면 “교과교실제는 학교의 대처방안 중 하나이며, 그것만이 특색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이 학교 전체구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교원이 이 학교로 진입을 희망해도 인기가 많아 교원이 좀처럼 될 수 없는 특별한 학교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학생이나 교원의 기질이 변화해 그에 더해 모델교로서의 역할을 축소한 것이 교과교실제를 그만두는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교육기기에 의한 교육혁신의 시기(1960~70년대)

이 시대에 교과교실형 교사의 공간구성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편랑하형식(\*한쪽에만 복도가 있는 형식)의 교사에 있어서 특정의 교과교실에 교육기기가 비치시켜 교육공학적인 관점에서 교육기기를 유효하게 활용해 교과지도의 성과를 얻으려 했다.

3)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혁신적 대처시기(1970~80년대)

오키나와현에서는 5개교의 교과교실형 교사가 건설되었다. 그 1개교의 평면도를 그림 7과 같다. 오키나와현의 공통적 특징은 이 시대에는 드물게 런치룸이 있었다는 점이다. 4개교에서는 런치룸에는 각 학급의 로커가 놓여 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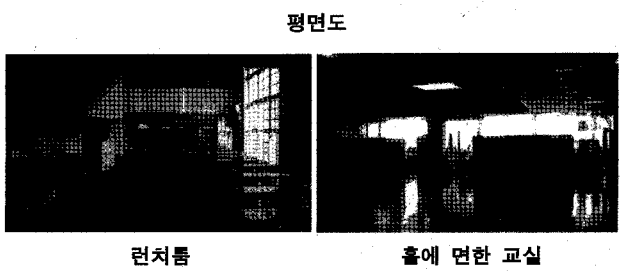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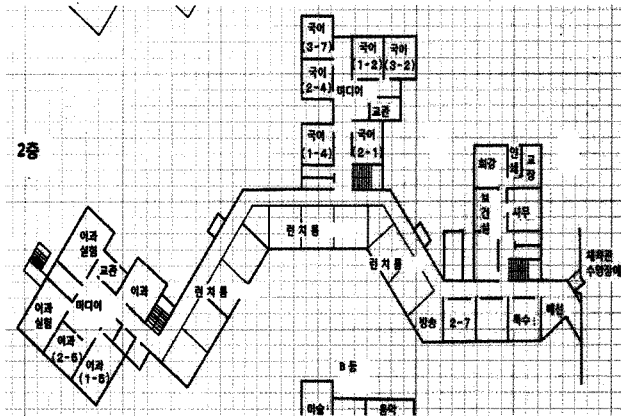


그림 7. 오키나와 현의 교과교실형 교사 사례 (3층 건물, 21학급)

홈룸을 행하는 장소로서 설정되어 있었다.

교과교실제를 실시한 학교는 모두 학급수가 많았다. 또한, 긴 이동거리가 학생의 부담이 되었고, 런치룸은 쇼트홈룸을 행하는 장소로서 학생이 있을 곳으로서 충분하지 않았다. 오픈형 교실을 가진 학교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도 발생하고, 학교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 빠졌다.

4) 소규모교에 있어서 교과교실제 교사의 개발시기 (1980~90년대)

그림 8은 일본건축학회상(작품상)을 수상한 나미아이중학교이다(교사완성은 1989년). 교실과는 별도로 각 학년 전용 공간으로서 홈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다. 교실은 오픈형식이나 학생이 적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 일본의 학교시설 보조기준은 학급수가 기초단위가 되기 때문에 1학급의 학생수가 적은 경우는 이에 비례해 교사공간에 여유가 생긴다. 소규모교의 교과교실형 교사의 설계에는 그 유리함이 잘 살려져 있다.

단, 소규모교이기 때문에 각 교과와 교원이 모두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교실제가 충분히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또는 같은 교과와 교원이 없기 때문에 교과상담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과제가 있다. 교과교실제를 그만둔 학교의 이유로는 장애 등을 가진 학생에게 있어서 교실이동이 큰 부담이 된다는 점, 사람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교실을 모두 정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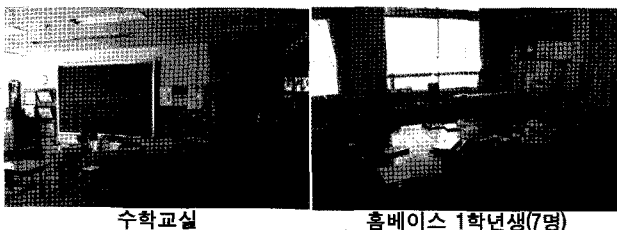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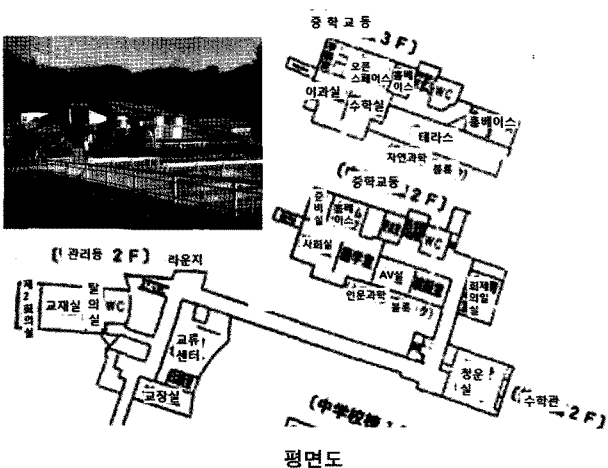


그림 8. 나미아이중학교(1986, 3학급 2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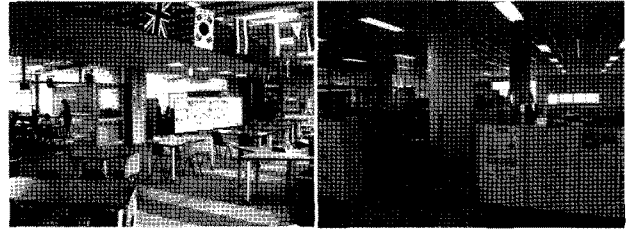


그림 9. 교육개혁을 지향하는 교사의 개발(90년대 이후)

는 점 외에 학생감소에 따른 휴교나 폐교가 있다. 나미아이중학교도 학교통합에 의해 2011년에 폐교할 예정이다.

5) 교육개혁을 지향하는 교사 개발 시기(90년대 이후)

최근 정비된 교과교실형 교사에서는 여러 가지 발전이 있어 공간구성의 바리에이션은 확대되고 있다. 첫째, 홈베이스의 설치법이다. 교과교실에 인접시키거나, 홈룸교실로서 사용하는 교과교실과 문으로 연결하는 형식으로 하거나, 앞서 진술한 듯이 독립한 공간으로서 홈룸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교과미디어센터에 대해서는 교과별로 설치하는 이외에 관련이 있는 복수교과가 공통의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년별로 설치하는 방식도 있다. 셋째, 교과교실과 미디어센터의 사이의 칸막이를 막는 방식으로 '가동식 칸막이', '유리창' 그리고 '오픈'의 경우도 있다. 넷째, 교원 스페이스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교원실만의 경우, 교과연구실이나 준비실을 별도로 가지는 경우, 미디어센터에 교원의 책상을 배치해 교원코너로 하는 경우 등이다.

그림 9는 미디어센터와 각 교과와 교원의 연구실을 집합시킨 공간, 독립한 홈베이스를 게재하고 있다.

4. 교과교실제의 이점과 과제

4.1 교과교실제의 이점

교과교실제의 이점에 대해 실시교의 회답(자유기술)을 내용별로 정비한 결과를 보면 그림 10과 같다.

이점은 '교과경영', '이동효과', '기타'로 크게 나눌 수 있

(51교, 163건)			
교과경영 (119)	지도체제등 (21)	지도하기 쉽다(7)	지도하기 쉽다(6)/ 수업진도의 관리가 용이하다
		지도력이 올라감(4)	수업스킬의 향상/교사집단의 힘을 높이는 공간/교과경영의 의식이 싹튼다/지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
		교과내의 연대(7)	연대·충실감이 깊어진다(3)/동교과내에서 연수가능(2)/동교과내에서의 보조가 맞는다/자습하는 일없이 담담이 놀는다
		자주학습에 도움됨(2)	자주학습에 도움이 된다/주체적인 학습에 대응
	학습환경의 정비 (40)	교과환경이 정비된다(26)	교과수업에 집중을 둔 교육/학습의 통합, 계속성의 유효성/특성을 살린 지도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교과개시를 연구할 수 있다(10)	특색을 살리기 쉽다(11)/학습환경이 마련된다(4)/학습의욕을 높이는 학습환경(5)/정보를 항상 게시할 수 있다/기타
		학습성적을 게시할 수 있다(4)	교과개시의 연구가 가능하다(6)/교과개시가 충실함(4)
	수업준비의 관리성 (25)	수업준비가 쉽다(16)	학습성적을 전시할 수 있고 학습효과가 높아진다(3)/학습성적을 교실내에 전시하고 볼 수 있다
		교재의 설치·관리(9)	수업준비가 용이함(11)/교실의 정비 충실/관리, 활용하기 쉽다(5)
	학습의욕의 향상 (17)	학습의욕의 향상(10)	교재를 상설할 수 있다(5)/보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4)
교과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9)		학습의욕이 높아진다(6)	
수업전개의 가능성(16)		의식이 생기기 쉽다·높아진다(6)/배우려 간다고 하는 의식이 생긴다(3)/적극성을 볼 수 있다	
이동의 효과 (35)	기본전환(9)	다양한 학습형태에서 수업가능(9)/수업에 맞춘 책상배치(3)/수업형태의 연구/개개인에 맞춘 교육/조사학습충실기타	
	교류(6)	기본전환이 쉽다(5)/기본전환(4)/이동에 따라 활기가 생긴다	
	자주성이 몸에 붙는다(11)	학년 클래스를 넘나드는 교류(4)/교원과의 교류중대/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다	
	자기관리능력(6)	자주성·주체성을 키울 수 있다(11)	
	학습의욕의 향상(3)	자기관리능력을 키운다(2)/시간을 지키게 된다(3)/수업전에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9)	시설 (4)	오픈교실(3)	이동에 따라 학습의욕이 높아진다(3)
			학생교사의 모습을 관찰하기 쉽다/학교전체가 밖으로 열려있다/오픈 스페이스에서의 수업에 위화감이 없다
	새로운 지도·운영(3)		교실에 여유가 있으며, 많은 선택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 활성화/학교나 지역행사에서 운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지도에 따라서는 사물의 취급의 의식을 높인다
			개인물건이 없어서 교과교실이 깨끗하다/HR의 후관을 학급만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그림 10. 교과교실제의 이점

(43교, 122건)			
교과경영(14)	수업(2)		교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난다/이점을 살린 수업만들기에 시간이 걸린다.
	교실환경만들기(3)		교원에 따라 차이가 난다/항상 연구할 필요있음/환경만들기에 시간이 걸린다.
	설비(6)		타교실의 소리(5)/공통교실 부족/학생수 증가로 전부 수용불가능/이과실의 실험대는 앉아서 학습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학교운영(26)	교원간의 연대(12)		이동해서 학습하는 의의를 끌어낼 수 있는 수업이나 환경
	시간할당(14)		공통이해(3)/의식개혁(3)/의사소통(2)/교과이외의 연대/교과와 학년의 밸런스/기타
학급·학년 경영(26)	학급의 정리(10)		교실조정(4)/학급활동과의 조정(3)/시간할당작성(2)/테스트시 교실조정(2)/교원의 업무를 켜기가 힘들
	학생이 있을 곳(2)		소속의식이 없다(5)/HR교실의 의식이 없다(2)/학생의 인간관계 만들기(2)
	교과교실의 환경만들기(7)		있을 곳이 없다/클래스에 있을 곳이 없는 학생이 생긴다
	시설(7)		특색있는 학급경영이 곤란하다(3)/학급과 교과와 경험/HR결용으로 어중간하게 된다/기타
학생지도(23)	학생의 장악(7)		HB가 좋다(3)/HR로서의 활동상 불편/학생단위로 사용하기 어렵다/학년활동 스페이스가 한정된다
	학생이 산만하다(4)		출결상황의 확인(3)/소재를 파악하기 힘들다(2)/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숨을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사물의 취급(6)		이동에 의해 산만해진다(2)/생활이 산만하다/안정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어렵다
	소유물이나 HB의 관리(3)		사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다(3)/사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지도(2)/파손·분실의 용인이 불명료
교실이동(32)	이동시간(10)		HB에서의 학생간 트러블이 많다/HR관리가 소홀해진다/학생의 소지품관리가 소홀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동의 부담(7)		다른 학년교류에 의해 영향이 생기기 쉽다/문제가 확산되기 쉽다/학생지도상 문제가 있으면 곤란
	지각(3)		시간이 걸린다(6)/쉬는 시간이 바르다/이동시간의 확보/10분 휴식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기타
	잊은 물건(6)		이동이 힘들다(3)/귀찮다고 느끼는 학생이 있다(3)/맞과목이나 준비해서 이동한다고 하는 불편함
	시설(1)		지각이 늘어난다(3)
경비(2)			잊은 물건이 있을 때 곤란하다(6)
			목조교사이기 때문에 이동시 2층 바닥소리로 1층이 시끄럽다
			대규모가 되면 이동인수가 늘어난다/이동부담이 있어 이 시스템이 가져 있다는 지각이 필요하다
			환경정비에 비용이 든다/런닝 코스트가 든다

그림 11. 교과교실제의 과제



으며, 전체 건수의 70%를 교과경영에 관한 내용이 점한다. 교과 특색을 내기 쉽다는 등의 '학습환경정비'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업준비의 편리성', 그리고 '교과지도의 편리함'이나 교과내의 '지도체제등'으로 이어진다. 이외에 '학습의욕의 향상'이나 '수업전개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동효과에 대해서는 '자주성이 몸에 붙는다'나 '기분전환' 등이 있다. 기타는 교과교실제의 도입이나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에 부수하는 이점이다.

#### 4.2 교과교실제의 과제

또한 교과교실제의 과제를 정리한 결과를 보면 그림 11과 같다. 회답수를 비교하면 학교수도 건수도 과제보다도 이점쪽이 20% 정도 많다.

과제는 크게 6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은 것은 '교실이동'이며 전체의 건수의 4분의 1을 점한다. 이동시간, 이동의 부담, 잊은 물건 등이 열거되고 있다. 이어서 많은 것이 교원간의 연대나 시간분할작업에 관한 '학교운영'의 과제, 그리고 학습의 정리, 학습을 위한 게시물의 취급, 학습이나 학년의 스페이스 등의 '학습·E학년경영'의 과제이다. 또한, 이들과 거의 동수로 지적된 것이 종래부터 지적된 적이 많았던 '학생지도'에 관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장악이나 사물의 취급 등이 있다.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나, 교실환경 만들거나 설비 등 교과경영'에 관한 과제도 있으며 경비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대체로 교과교실제는 교과지도에는 뛰어나나 학생지도나 학교운영면에서는 과제가 많다고 할 수 있겠다.

#### 4.3 사례연구

필자들은 교과교실제에 관하여 지금까지 50개교를 넘는 중학교를 견학해 몇 개의 학교에서는 학생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에서는 교과교실제가 잘 기능하고 있는 학교 및 교과교실제를 유지한 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 1) G중학교 (1999신축, 그림 12 참조)

교사의 특징 : 중앙의 통풍공간과 각종의 다목적 스페이스를 특징으로 하는 교사로 콤팩트하게 만들어져 있다. '학년 교류 코너'라 칭하는 다목적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이 배치되어 있다. 이 다목적 스페이스는 교과미디어센터를 겸하고 있으나 학년집회나 발표회로도 활용된다. 각 교과교실은 홈룸교실로서도 할당되고 있다. 예를 들어 '1-3'의 표시는 1학년 3반의 홈룸으로서도 사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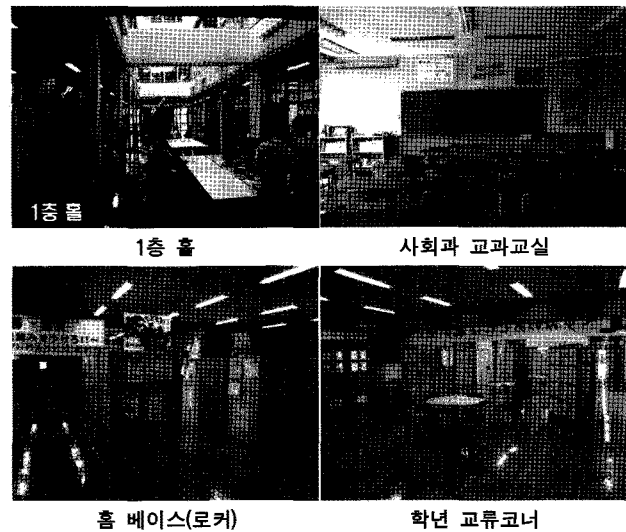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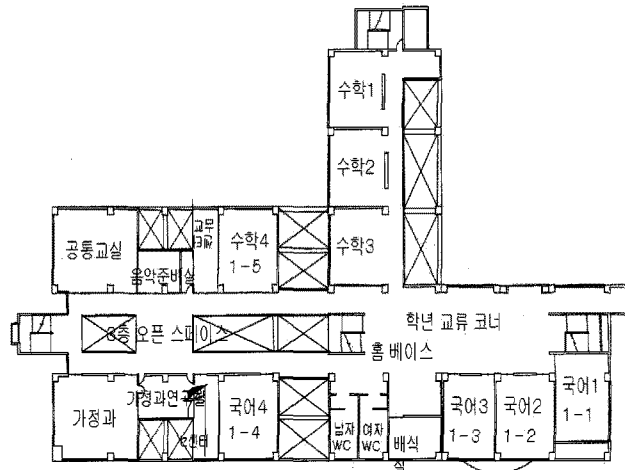


그림 12. 아키타시립 고쇼노학원중학교-사례1(1999, 14학급)

다고 하는 의미이다.

사회교과실(지리)의 정면에는 '아키타(지역명)로부터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로부터 아키타를 바라보자'라고 사회과를 공부하는 자세를 표어로서 붙여놓아, 교원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다. 이 학교에서 홈베이스라고 불리는 것은 로커스페이스이다. 로커에 각 학습의 게시물이 붙여져 있다. 학생은 매시간마다 짐을 가지러 홈베이스에 돌아온다.

교과교실제의 성과 : 학생설문지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13~17과 같다. 결과에 의하면, '이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의 비율은 개교부터 4년간에 걸쳐 줄어들어 '교실이동이 기분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비율도 늘었다. '교과교실의 환경이 교과학습을 하는 교실로서 충실한가'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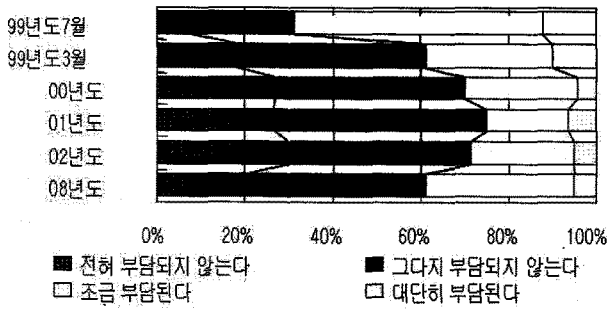


그림 13. 교실이등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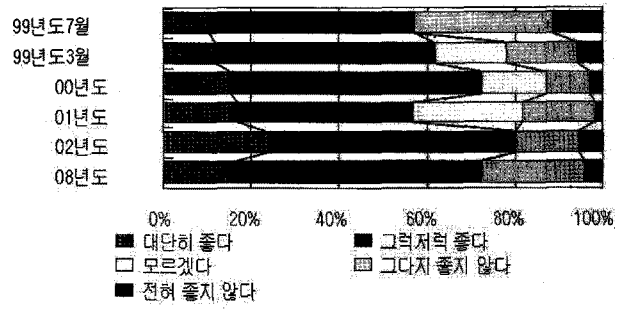


그림 17. 교과교실제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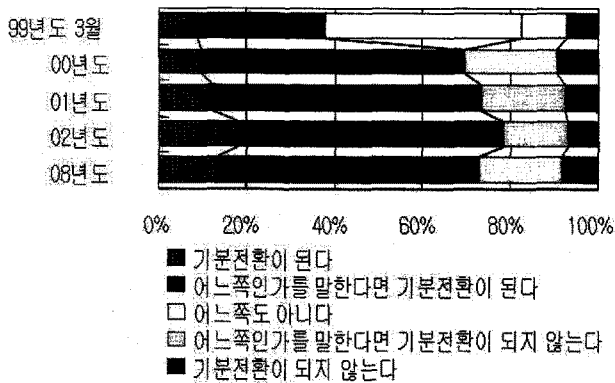


그림 14. 교실이등은 기본전환이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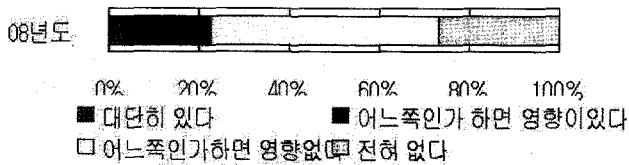


그림 15. 클래스 정리에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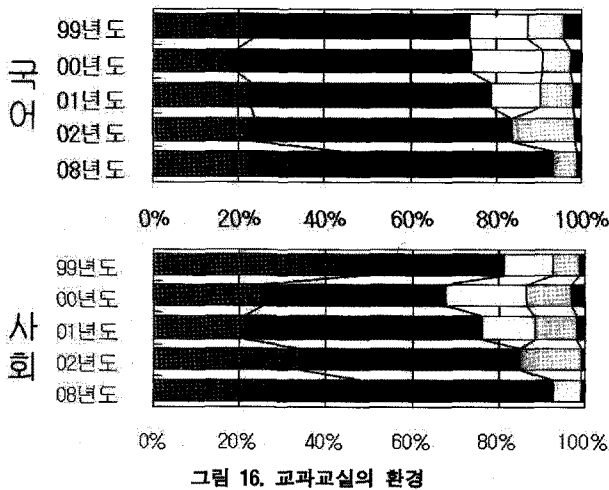


그림 16. 교과교실의 환경

그리고 종합적으로 교과교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 70~80%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의 수업평가결과는 70~80%의 학생이 수업이 충실하다고 회답하고 있다. 또한, 학력테스트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상으로부터 이 학교는 종래의 중학교 교육으로부터의 큰 전환을 이루어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성공의 요인을 필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첫째, 학습의 질을 높이는 수업이다. 이 학교는 65분 수업을 실시했다.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에 의해 학생에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거나, 정리하게 하거나, 발표시키는 것을 추진했다. 이 수업개선이 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세를 바꿨다. 또한, 교실의 이동횟수를 1회 줄이게 되어 학생의 교실이동 부담을 경감시켰다.

둘째, 학년, 학급경영의 연구이다. 교과교실제에서는 종래대로의 학급경영은 불가능하다. 거기서 교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학년단 전체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체제로 바뀌어 갔다. 학년교류코너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이 자습이나 독서를 하는 사이, 학년단의 교원은 여기에서 회의를 한다.

셋째, 교사의 구조이다. 그림과 같이 교사는 극히 컴팩트하다. 그리고 로커교사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으며 매시간의 이동거리도 적게 끝난다. 또한, 통풍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은 동료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고, 시인성이 높다. 직원실은 1층의 홀에 있으나, 교원에게 있어 교사내의 학생의 행동을 파악하기 쉽다.

2) F중학교 (2005개축, 그림 18 참조)

교사의 특징 : 당시 교과교실형 교사의 평판을 듣고 개축을 기회로 교과교실형 교사가 건설되었다. 교과미디어센터의 주위에 교과교실과 교과준비실이 배치된 '교과센터방식'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채용했다. 계단도 요소에 설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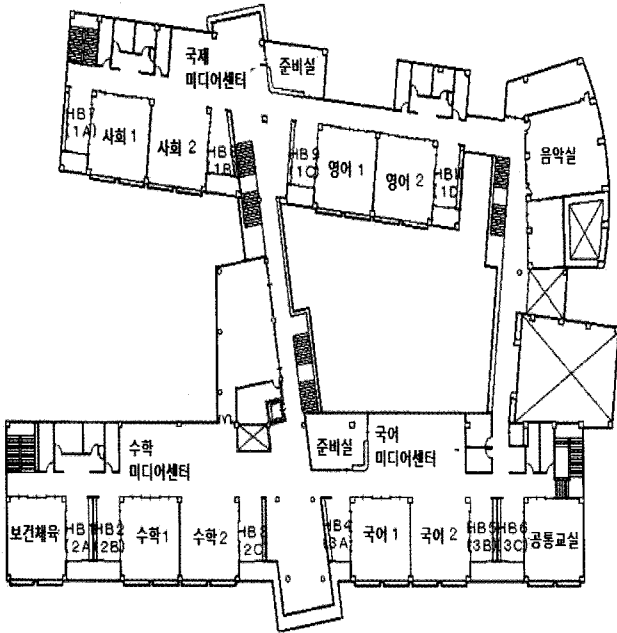


그림 18. F중학교 2층 평면도-사례2(2005, 10학급)

어 있으며 교과교실형 교사로서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2층 건물의 교사이다.

교과교실제로부터 보통교실제로 : 그림 19~22와 같이, 교과교실제를 유지하기 전 및 유지한 후 (보통교실제) 학생의 교과교실제에 대한 평가를 검토한다. 결과에 의하면, 유지하기 전에는 50%를 약간 넘는 학생이 교과교실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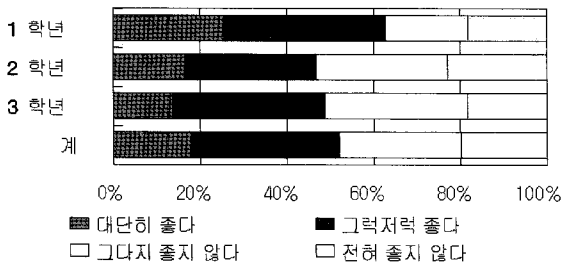


그림 19. 「교과교실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H19.10 : 유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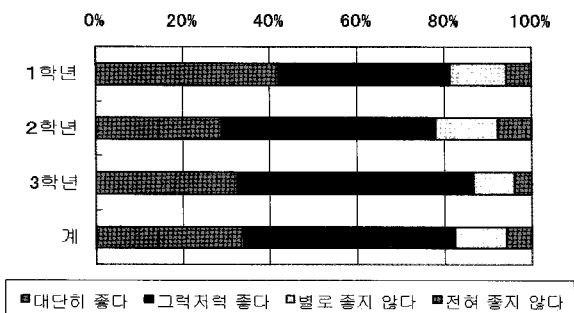


그림 20. 「교과교실제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 (H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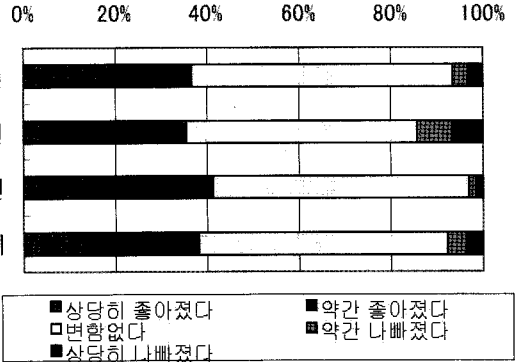


그림 21. 「학급의 정리에 대해서」 (H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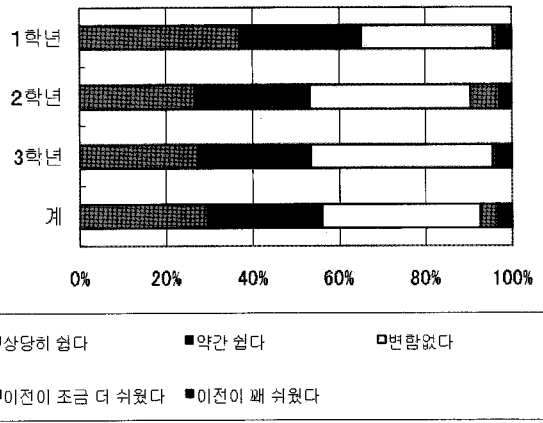


그림 22. 「수업에 집중하기 쉬워졌는가」 (H20.3)

그러나 휴지후에는 80%의 학생이 ‘그만되어서 좋았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학급의 정리도 40%의 학생이 ‘좋아졌다’라고 하고 있다(‘나빠졌다’는 10%에 못 미침). 수업에 집중하기 쉬워졌다고 하는 비율도 50%를 넘고 있다(‘이전이 더 하기 쉬웠다’는 10%에 못 미침). 따라서 교과교실제의 휴지는 명백히 학교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 5. 향후의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

### 5.1 향후의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

#### 1) 중학교에 있어서 새로운 움직임

먼저 여유교실의 활용에 따른 교과교실의 정비이다. 저출산화에 따라 학교규모가 축소하는 것은 일본의 학교교육의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이미 실례가 있으나, 금후 여유교실을 활용한 교과교실제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개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진 보강을 행해 긴 교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홈룸교실을 확보하면서 여유교실을 개조해 교과교실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어, 사회, 수학, 영어 등의 특별교실을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교과교실제라고는 할 수 없고 보통교실제를 발전시킨 절충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개축에 맞춰 이러한 설계도 산발적으로 보인다. 한편 소인수수업의 확대에 동반하여 여유교실을 이러한 특별교실로 전용하는 것은 일정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2)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과교실제

중학교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큰 차이의 하나는 과목선택수의 차이에 있다. 고등학교 중에서도 종합학파나 단위제고교 등에서는 학생은 큰 폭의 과목선택을 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과교실제가 행해지고 있으나, 금후 학생의 대폭적인 과목선택을 인정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과교실제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3) 금후의 전망(교과교실제 확대의 열쇠)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차의 양바퀴인 교과지도와 학생지도 중, 학생지도 면에 교과교실제의 과제가 많다. 학생지도(풍부한 인간성의 육성을 포함)라고 하는 역할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축소되지 않는 한, 또는 학교 내에서 다른 태세로 학생지도의 구조가 생기지 않는 한, 교과교실제가 갑자기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지자체에서 듣기로는 통상의 교사건설보다도 많은 경비가 드는 것이 교과교실형 교사를 정비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라고 하는 회답을 얻었다. 확실히 문부과학성의 보조기준면적을 크게 상회하는 교과교실형 교사는 적지 않다. 또한, 교과교실형 교사를 정비하는 지자체에는 재정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경비문제는 교과교실형 교사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의 하나이다.

5.2 한국에의 시사점

1) 일본의 경험

- 현재 일본에 있어서 중학교의 교과교실제는 크게 보면 교육개혁을 배경으로 교사정비를 계기로 진행되어 왔다.
- 그러나 교과교실형 교사를 정비한다고 바로 교과교실제가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학교운영에 관한 여러 조건이 마련되어서야 비로소 성과를 올릴 수 있다.
- 성부의 열쇠를 쥐는 제1은 학교운영의 요점인 교원이다. 교원의 이해와 대처가 불가결하다고 생각된다.
- 교과교실제는 학교를 크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한편으로 리스크도 있다.

2) 한국에의 시사

- 한국의 학교시설정비가 놓인 상황은 일본과는 같지 않으므로 일본의 경험은 그렇게까지 참고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 굳이 말하자면, 만일 교과교실형 교사의 정비를 추진한다면 리스크를 될 수 있는 한 낮추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 있다.
- 또한, 모델교를 설치하여 행정, 교직원, 건축가 등의 관계자가 검증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 고등학교처럼 학생의 과목선택의 기회가 많은 학교에서는 교실이동의 필연성이 높아지므로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